일본의 OE사 - 차별화로 용도가 다양화

OE사는 그 동안 링 방적사보다도 생산성이 몇 배나 크지만 실의 표정이 굳으며 싸구려의 대명사로 알려져 왔는데, 그러면서도 천의 촉감이 캐주얼 소재로서는 OE사가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도 있다. 유럽에서는 고급 브랜드의 원사로 사용되기도 하고, 시대가 변하는 데 따라 방적 기술이 혁신되면서 OE사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이 점차 바뀌고 있다.

OE 정방기는 체코의 인베스타(Investa)사가 1963년에 개발하였으며, 1967년에 일본의 다이와보가 OE 정방기 BD 200을 기술 제휴하여 최초로 실용화에 성공하였다. 그 후 큰 방적 기업뿐 아니라 여러 기업들이 OE 정방기를 도입하였으나 “자동화가 잘 안되어 있다” 또는 “실의 강력이 떨어지고 표정이 거칠면서 굳다” 등의 이유로 1980년을 피크로 수요가 감소되었다. 그 후 독일의 슐라폴스트사(Schlafhorst)가 BD 200을 개량한 “오토코로(Autocoro)”를 개발하면서 이를 다시 도입한 기업도 있었으나 일부 소수에 불과하였다.

일본 기업 중 OE 정방기의 보유 상황을 보면 면방의 다이와보는 말할 것도 없고, 구라보, 츠즈키보, 도호 텍스타일 등은 링 정방기와 함께 OE 정방기도 보유하고 있는데, 다이와보는 와카야마 공장에 “BD 200” 약 7,000 로터, 오토코로 약 3,000 로터로 약 1만 로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사히 방적, 선랜드를 비롯한 여러 중소 규모 공장들과 같이 OE 정방기만을 가동하고 있는 공장도 여럿 있다. 일본 내의 OE 정방기 보유 규모는 BD 200이 약 17,000 로터, 오토코로가 약 10,000 로터로 도합 약 27,000 로터로 추정되고 잇다.

최근 수년 동안 면방 업계에 실을 차별화하려는 경향이 생기자, 링 방적사

와는 다른 촉감을 원하는 소리가 높아지면서 OE 정방기를 갖고 있는 방적 각사에서는 OE사의 특징을 살리려는 개발이 빠르게 추진되었다.

다이와보의 방적 자회사인 다이와보 머티어리얼즈의 아카야마 공장은 세계에서 최초로 OE사를 실용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차별화를 위한 개발면에서도 남다른 열의를 갖고 있었다. 최근에 판매가 늘고 있는 "에어 컴팩트"는 잔털이 아주 적은 것이 특징이며, 그 동안 BD 200을 개조하였고 원료의 선택, 방출 조건의 선정, 공정 관리 등을 개선하였다. 2005년도의 판매량은 이미 목표인 300곤을 초과하고 2004년도 실적을 웃돌고 있다. 새롭게 개발된 강연타입의 "에어 컴팩트 V"를 상품화하는 등 소재의 배리에이션을 넓힘으로써 판매량을 늘리고 있다.

OE사는 신도나 강도 문제로 40수 이상을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결점의 하나였는데 산요합섬은 BD 200을 개조하여 4년간의 연구 끝에 60수를 방적하는 데 성공하였다. 지금은 링 방적사와는 다른 촉감의 OE사를 원하는 고객도 많아, 현재 니터를 중심으로 판매를 늘리고 있다. 산요 합섬에서는 OE사의 세번수화뿐만 아니라 경량화, 형상 변화 등의 여러 가지 특수 OE사를 개발하고 있다.

선랜드는 4년전부터 임방(賃紡)이 100%로 되어 있는 현상을 벗어나기 위하여 차별화 실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는데, 2005년에 OE 정방기로 "리믹스(remix)"라는 새로운 제조법을 개발하여 특허를 신청하였다. OE의 개섬 롤러에 슬라이버와 함께 실을 공급해 주는 새로운 발상으로 이론상으로는 20가지의 혼방사도 가능하다고 한다.

OE사는 좋은 평가를 받게 될수록 착실하게 용도도 넓어지고 있다. 산요합섬은 피마 면으로 뽑은 OE사가 아주 깨끗하게 니트를 짤 수 있다고 하여

시마세이키 제작소의 홀 가먼트 횡편기용 원사로 인기가 좋다고 한다.

또한 선랜드에서는 이집트의 초장면으로 짠 소재가 유럽의 고급 브랜드의 재킷 소재로 선정되었다. 리믹스의 소재도 셀렉트 숍 등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 제품은 한 로터마다 다른 원사를 생산할 수 있으며, 고객의 뜻에 맞는 상품을 만드는 데 편하다는 이점도 있다. 그러한 장점을 살려, 이제까지 없었던 하류(down stream)와 직접 제휴하여 신소재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